

## 의류산업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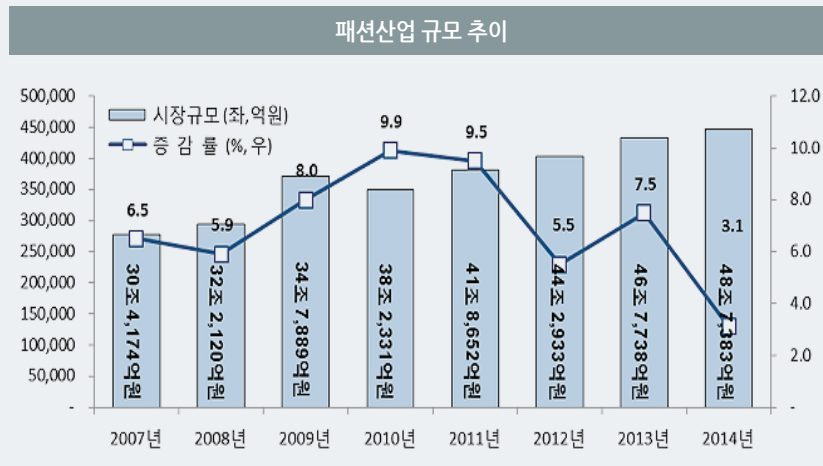
이희정 | 평가 3실 선임연구원 | 02-368-5363 | heejung@korearatings.com

### 2011년 이후 패션시장의 성장둔화

의류산업은 국내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준으로 국내 GDP 성장률, 민간소비증감률 등 주요 거시지표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수의류시장은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세에 따라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11년 이후 경기둔화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년 성장률이 소폭 감소하는 양상이다.

### 2014년, 패션산업의 회복 예상되었으나 세월호 사건 등으로 성장률 감소

2014년 '내수의류 산업전망'에서는 2013년 4분기에 의류지출에 대한 소비자 전망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을 근거로 2014년 패션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저하되었고, 기대보다 국내 경제성장률의 증가가 제한적임에 따라 2014년 패션시장의 성장률은 2013년 대비 둔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2015 패션시장조사사업(trendlab 506).

### 복종별 성장률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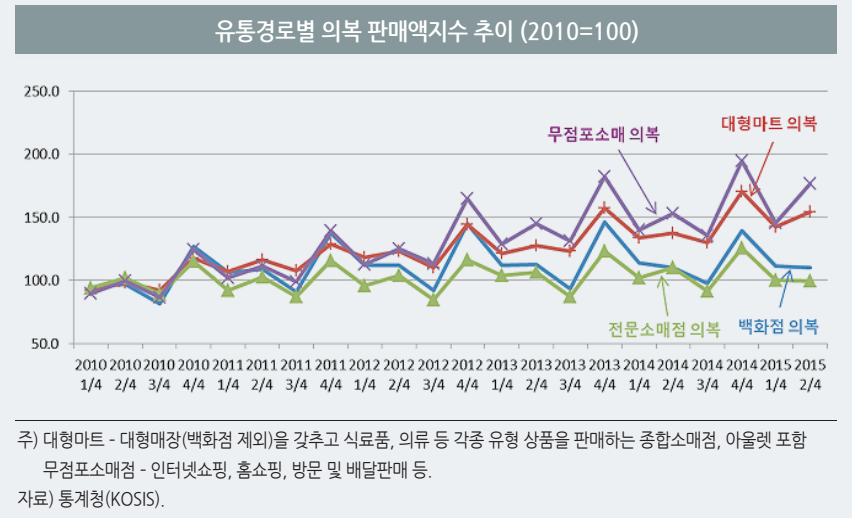
최근 의류시장의 복종별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전통적 강자였던 여성복, 남성복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캐주얼(SPA포함), 스포츠(아웃도어, 골프 포함), 잡화의 비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여행, 등산, 캠핑 등 여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캐주얼 아이템(SPA, 스트리트 패션),



패션 잡화 등을 통해 자신의 패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복종별 성장성이 상이해진 것에 기인하고 있다.

### 유통경로별 의복 판매액 성장세 상이

한편, 최근 국내 소비자들은 동일 상품에 대하여 유통경로별로 가격을 비교한 후 구매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쇼핑이 편리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의 무점포소매점에서의 의복 판매액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백화점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마트(아울렛 포함)에서의 의복 판매액 증가율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백화점 및 전문소매점의 경우 무점포소매 및 아울렛 등으로 고객이 이탈되면서 판매액 증가는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 2015년 국내 GDP 성장률 전년 대비 소폭 하락 예상

2015년 '내수의류 산업전망'에서는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세, 확장적 예산편성(2014년 대비 20조원 증액) 등에 기반하여 2015년의 경제성장률이 2014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계부채 부담 등의 제약요인 및 2015년 6월 메르스 확산에 이은 소비심리 저하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분	경제지표	2010	2011	2012	2013	2014 <sup>e)</sup>	2015 <sup>e)</sup>
한국	GDP 성장률	6.5	3.7	2.3	3.0	3.3	2.8
	내수부문 순성장 기여도	3.2	2.1	0.7	1.4	2.3	2.3
	수출부문 순성장 기여도	3.1	1.5	1.6	1.5	1.0	0.5
	민간소비 성장률(실질)	4.4	2.9	1.9	2.0	1.8	1.8
	소비자물가상승률	3.0	4.0	2.2	1.3	1.3	0.9
	고용률	58.7	59.1	59.4	59.5	60.2	60.3
	가계대출/가계총처분가능소득(%)	113.2	116.1	117.6	119.2	122.3	-
세계	경제성장률 (IMF)	5.4	4.1	3.4	3.3	3.4	3.3
미국	경제성장률 (IMF)	2.5	1.6	2.3	2.2	2.4	2.5
유로	경제성장률 (IMF)	1.9	1.6	-0.7	-0.4	0.8	1.5
중국	경제성장률 (IMF)	10.4	9.3	7.7	7.7	7.4	6.8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5.07),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uly,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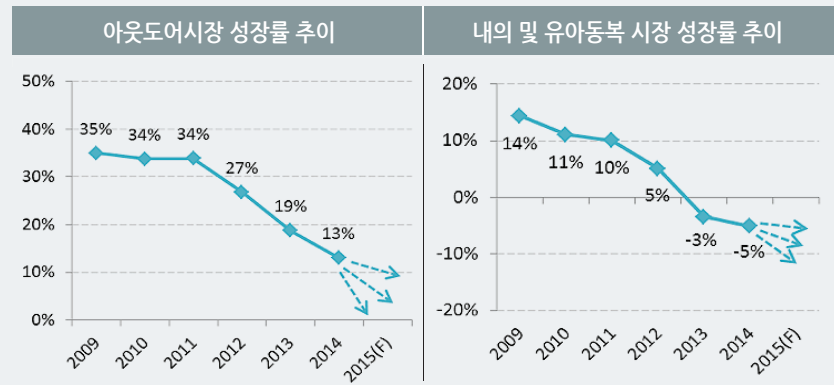
### 의류시장 성장률 소폭 상승 전망

실질 민간소비 성장률 역시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6개월 후의 의류비 소비지출을 전망하는 의류비 지출전망 CSI 또한 2015년 6월부터 99를 지속하는 등 2015년 의류산업의 성장세는 전년대비 정체 또는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 복종간 차별화 지속

2014년부터 내수의류산업의 성장 둔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복종 내 경쟁강도가 과거 대비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복종별 성장 차별화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화산업은 여타 의류 복종 대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2013년까지 의류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온 아웃도어산업은 2014년부터 실적이 부진한 일부 중소형 브랜드의 철수가 이루어지는 등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동복 및 내의 복종의 경우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SPA 및 아웃도어의 확장에 의한 시장 잠식으로 시장 규모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업계자료.

주) 국내 내의 및 유아동복업체 13개 합산.  
자료) 감사보고서.

### 브랜드 컨셉, 신유통 활용 등을 바탕으로 업체별 실적 차별화 예상

한편, 해외 브랜드의 진입 및 기존 브랜드의 서브 라인 런칭으로 복종 내 경쟁 또한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위축되고 있는 국내 여성복에서도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제2의 도약기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신세계토톰보이 : 톰보이)이 출현하고 있으며, 국내 캐주얼에서도 온라인 유통을 기반으로 백화점까지 진출하는 기업(난다 : 스타일난다)이 나타나는 등 독특한 브랜드 컨셉, 신유통 활용 등을 바탕으로 업체별 실적 차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